

부실 사립대학 11월께 퇴출 광주·전남 2~4곳 포함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빠르면 11월께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퇴출시키기로 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퇴출은 일정 기간 동안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 사립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소 2개 대학에서 많게는 4개 대학까지 구조조정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공립대(96.6%)와 수도권 사립대(95.6%)에 비해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92.9%)가 이번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대학 공식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중 2008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동시에 70% 이하인 대학은 4곳이며, 이 가운데 50% 이하인

곳도 2곳이나 된다. 결국 학생 모집이 절반도 되지 않는 2개 대학을 비롯해 최대 4개 대학이 구조 조정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신입생 충원율(2008년)이 70% 이하인 대학은 광주·전남지역 4곳을 포함해 총 14개 대학이다. 전남지역 한 사립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퇴출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선정할 지, 또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할 지 등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 방침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 심의 및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나선 것. 대학 정원원은 이미 2003년에 고교 졸업생 수를 넘었고, 전국 대학 등록 인원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출산율 감소가 겹치면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대입 학령 인구는 2005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6월까지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충원율, 재무 상태, 장학 혜택 등 대학별 교육 여건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든 뒤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 대학을 오는 11월께 최종·확정해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만 같아라” 7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아버이 날 기념 제3회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자들이 희망찬 함성으로 선전을 디짐하고 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이 마련한 이 행사에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건강댄스, 명랑운동회 프로그램에서 기량을 겨뤘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천신일 회장 의혹’ 18곳 압수수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천신일 세종나모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서울 성북동 천 회장의 자택과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빌딩의 세종나모여행사 사무실, 계열사인 소공동 세성항온 사무실로 보내 천 회장의 개인 장부와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오후 8시까지 천 회장과 자금거래를 한 15명의 자택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천 회장 개인 및 법인과의 자금거래 내역과 주식 매매 현황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회장의 거래처 관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7~10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국제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천 회장이 여권

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6년 4월 천 회장이 소유한 세종나모인터랙티브가 비상장 법인인 세종여행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혐의가 구체화하는 대로 다음 주께 천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대로 실시됐는지,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박 회장 등을 고

알림
제18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시: 2009년 5월 24일(일) 오전 10시
- 장소: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5월 22일(금) 오후 5시까지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 참가비: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상: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주최: 光日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

경계 6단계 격상 전망...국내 세번째 감염 확인

WHO(세계보건기구)에 공식 보고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23개국 총 1천893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6일(현지시간) 신종플루 경계수준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뜻하는 6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7면> 미국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지난 4일 36개주 286명을 기록한 데 이어 5일 38개주 403명에서 6일 41개주 642명으로 하루 새 약 60% 급증했다. 장마오(張茅)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6일 중국이 신종플루의 본토 확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지난 3일 신종

코스피 1400 회복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코스피지수가 7개월만에 1,400대를 회복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63포인트(0.55%) 오른 1,401.08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93포인트(0.77%) 오른 513.95로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코스피지수가 1,400선을 뚫은 것은 1,419.65로 마감했던 지난해 10월 2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4.70원 떨어진 1,262.30원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해 말 1,259.50원 이후 낙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 시대의 지성’ 김우창 교수에게 듣는다 ▶인터뷰 5면

082) 515-7600

우리나라 다시보기 제주도 재발견

세계 자연 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섬 제주도! 낮고, 높고, 볼품 없는 그곳! 아름다운 풍경과 신비의 섬 제주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공+항공 249,000원 **선박+선박 128,000원**

“5월”
5월 14일(토)~15일(일) 2박 3일
전일정 광주출발 도/착기준

- 항공편: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 선박편: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 항공편: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 선박편: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제주도 여행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5월”** 전일정 광주출발 도/착기준